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동물’을 통한 바람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성 훈

# ‘동물’을 통한 바람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성 훈

# 인 준 서

강성훈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에 있어서 그 표현양식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자연풍토, 관습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자연적 풍토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역사적인 유산이나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날씨등과 같은 자연현상까지도 모두 미의 대상이며 우리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자연형상 중 바람에 관심을 갖고, 자연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날씨에 따라, 기온에 따라, 변화무쌍한 바람을 맞음에 있어서 느껴지는 즉흥적 감흥들은 다양한 경험을 준다. 또한 바람을 맞는 이의 기분이나 감정, 분위기, 기억에 따라 느끼는 감성은 심상적 경험을 가능케 해주기도 한다. 비오는 저녁 텅 빈 거리에 불어오는 바람은 스산하고 고독한 느낌 주는가하면, 무더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에 불어오는 바람은 숨 막힐 정도의 답답함을 안겨 주기도 한다. 바닷바람을 맞을 때에는 옛 추억에 잠기듯 살며시 눈을 감고 그리움에 빠져보기도 한다. 바람이란 다양한 느낌으로 피부에 닿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본인은 동물의 형상을 통해서 바람의 느낌을 금속선의 흐름으로 가시화하여 바람형상을 시각화함으로 바람이 흐르는 감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Windymal” 이란 주제를 갖고 바람과 동물을 일체화된 상태를 연구한 논문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바탕이 되는 바람의 생명력과 동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 하였다. 작품 주제인 Windymal (바람동물)의 형태로 표현한 연구방법으로 유동적인 선을 통한 시간성, 속도감의 조형적 특성을 서술하고, 제작기법과 제작의도를 연구 분석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개괄적인 정리 및 본인의 작품 진행 방향에 대한 연구 의지를 밝혔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바람의 생명력 .....	3
2)동물의 상징적 이미지 .....	5
3)Windymal (Windy + Animal) .....	6
2. 조형적 특성 .....	7
1)유동적인 선 .....	7
2)시간성과 속도감 .....	9
3. 작품분석 .....	15
III. 결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Wind rhinoceros, copper, 400×1000×500(mm), 2008 .....	15
【작품 2】 Wind eagle, copper, 2400×530×1700(mm), 2010 .....	17
【작품 3】 Wind dolphin, copper, 1200×7000×1300(mm), 2010 .....	19
【작품 4】 wind elephant ll, copper, stainless steel, 2250×4500×2250(mm), 2010 .....	21
【작품 5】 Wind tiger, copper, 700×1800×1200(mm), 2007 .....	24
【작품 6】 Wind bird, copper, 가변 설치, 2008 .....	26
【작품 7】 wind hippo, copper, stainless steel, 600×1800×1400(mm), 2009 .....	28
【작품 8】 Wind rhinoceros II, copper, stainless steel, 1300×6000×1500(mm), 2010 .....	30

# I. 서론

예술은 무한한 자기표현의 세계라 하고, 예술가는 그러한 자기표현에서 거침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작가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예술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주변 세계의 경험과 관계들이 자기 내면에 살아있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원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의 표현은 자신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삶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며 자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현상 중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면적 심상을 불러 일으키는 결정체로써 본인은 특별한 애착을 갖는다. 선천적 다한증으로 고생하며 살고 있기에 바람은 나에게 고마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여름이면 온몸에 한진(汗疹)으로 고생하기 일쑤고 시원한 음식과 장소를 찾아다니며 생활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바람에 감사하며 본인 내면의 감성적 바람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바람이 불때마다 느껴지는 감성적 쾌감을 동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변화되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다. 싹쓸바람, 왕바람, 실바람, 산들바람 등이 동물 이미지로 결합되어져 ‘Windymal’ (Windy + Animal) - ‘바람동물’ 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의 내면적 감성을 바탕으로 흐름, 운동감, 감흥(시원함)의 감각적 느낌을 형태적으로 조형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생각을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바람의 생명력 고찰과 작품소재로서의 바람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동물의 이미지가 유기적인 바람으로 표현되어져 갖는 생명력의 의미를 본인의 작품을 기반으로 연구한다.

셋째, 본인의 작품에서 도입된 'Windymal'이 갖는 특징을 정의 하고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논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 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바람의 생명력

기(氣)란 서양에서는 에테르(Ether)나 가스를 뜻하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이나 우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의 뜻을 나타낸다.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물은 바로 이 기(氣)로 이루어져있으며, 곧 기(氣)는 존재물을 구성하는 구극극미(究極極微)의 원자적인 요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氣)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체는 기(氣)가 취합된 것이다<sup>1)</sup>

동양철학의 주역(周易)에서는 “만물은 양기와 음기의 화합으로, 기(氣)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호흡이나 우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에너지의 뜻을 나타낸다.”<sup>2)</sup>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도가(道家)사상에서는 생명력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운이라는 말은 생명력 승화(昇華)인 것<sup>3)</sup>이며 자연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기운의 원리는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시자의 공통적인 필연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모든 자연물에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엄격히 존재하는 것이나 그 기(氣)의 실제적 형상을 직접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공간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氣)가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공기의 흐름으로서,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른다.

한줄기 세찬 바람이 우리의 몸을 에워싸고 하늘로 소용돌이치며 흐를 때

1) Fritjof Capra,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 김용정 역 (서울: 범양사, 1993) 252p.

2) Fritjof Capra 252p.

3) 김인환, “기운생동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홍익대학교, 1981, 51p.

우리는 거기에서 자연의 근원적인 힘이 작용함을 느끼며 살아 숨 쉬는 생명성(生命成)을 감지하게 된다.

바람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 주변에는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며 그 움직임은 적어도 연구자에게 생명의 울동, 미적 체험으로써, 내 영혼에 울림을 일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미세한 울림들은 내면적 감성을 자극하는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바람은 외부세계와 인간 내면세계를 연결시키면서 인간 영혼의 탐색을 한층 깊고 심오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의미들은 우리에게 늘 다양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며 바람에서 느끼는 감정과 처한 상황, 체험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년 8월 25일 ~ 1803년 12월 18일)는 18세기 독일의 '슈투름 운트 드랑(Strum und Drang)'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신학자·문예 비평가이다. 그는 모든 미는 '표출적(表出的)'이라 하였다. 따라서 어떤 형식은 관조자에게 있어 내적인 생명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에서만 미의 이름으로 가치를 갖게 되어 감정이입 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미학자 에른스트 피셔(Ernst Fisher, 1899-1972)는 미적 관조(官租)에서는 관조자의 정신이 대상 속에 자기를 이입시켜 대상을 자기의 소유로 만듦으로써, 형식 속에 대상의 내적 본질 및 생명이 계시되어 내용이 형식으로 되고, 표출도 충만한 형식과 형식화된 표출이 하나로 되는 것<sup>4)</sup>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감정이입설에 가까운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표현은 대상에 생명감을 주는 것이며, 대상의 복사가 아닌 작가의 주관적 세계가 포함되어진 감정 표출인 것

---

4) 미학, 예술학 사전, 안연길 등 역 (서울: 미진사, 1993) 89.

이다.

이처럼 생명력 있는 나의 경험은 지속적인 상상력을 가지며, 변화되어 표현되어 진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바람이미지는 동물과 일체화 되어진 기(氣)의 형성으로 힘찬 형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이 공존하는 무의식의 내면적 에너지를 대변해주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선천적 다한증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특히 여름이면 본능적으로 시원한 곳,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곤 한다. 그러할 때면 시원한 바람에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땀이 마르며 흐르는 바람의 움직임은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람은 세기, 나의 내면의 감정, 순간의 의식 등에 따라 즉흥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직접적 체험으로 나만의 바람을 그리는 작업의 근원적 동기가 되고 있다.

## 2) 동물의 상징적 이미지

바람을 표현하는 형상적 연구는 그저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그 중 동물의 선택은 무형의 바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생각되었다. 태풍, 돌풍, 짙은바람, 왕바람, 실바람, 산들바람 등 바람은 불어오는 온도나 세기, 지면과의 마찰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를 다양한 동물들의 형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바람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은 강력한 바람의 특징적 모습으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로 코뿔소의 강력한 이미지와 닮았다. 코뿔소의 가시거리는 10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전속력이 60km 움직이는 코뿔소는 거의 앞을 보지 않고 달려 나가는 것 과 같다. 달리는 코뿔소 무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춰 서지 않는다. 다만 그 주위의 동물들은 피해갈 뿐이다.

돌격하는 코뿔소의 강력한 이미지를 태풍의 이미지로 연상하여 【작품 8】 Wind rhinoceros II를 제작하였다. 뿔을 강조하여 돌진하는 힘을 실어 주었고, 작품을 이루고 있는 곡선들로 태풍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바람에 대한 경험 속에서 동물의 이미지를 찾아 상징성을 부여하여 구상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검은 먹구름은 지구를 먹어 삼킬 듯 다가왔다. 먹구름과 함께 웅장하고 근엄한 바람은 스산한 분위기로 온힘이 빠져 나갈 듯이 불어왔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를 마주하듯이 불어오던 바람은 【작품 4】 wind elephant II로 제작 하였다. 작품은 웅장함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크기에 앞으로 다가올 듯 바람처럼 흐르는 큰 귀와 상아부분을 강조하여 제작하였다.

동물 자체의 특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바람을 표현해보기도 하였다. 【작품 3】 Wind dolphin 은 돌고래가 물위로 뛰어 오르는 찰나를 표현 하여 순간의 긴장감과 돌고래의 운동방향을 늘어진 잔상의 표현으로 돌고래의 속도감을 잡아 낼 수 있었다. 유동적인 선의 흐름으로 동물의 운동감과 바람의 상태,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듯 본인의 작업은 바람과 동물의 상징적 이미지들이 바람의 경험이나 감성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 3) Windymal (Windy + Animal)

작품 속 동물들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그것들은 중력에 얽매인 둔중한 무게를 떨쳐내고 대기를 가르며 나아가며, 미세한 주름들의 뭉침과 풀림을 통해 바람의 원소로 흩어지기도 한다. 작품 주제인 ‘Windymal’은 windy와 animal의 합성어로, 바람과 동물로 결합되어진다. 바람동물은 외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선들로 이루어져있다.

‘windymal’은 입체 드로잉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드로잉을 많이 하지는 않으며 드로잉대로 형상화하는 것도 아니다. 작품제작 시에 형태를 잡아가는 시점에서의 즉흥성과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것은 동물 뒷부분에서 형상화되는 움직임의 속도감이나 바람의 유기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그래서 작품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3차원 공간을 점유하는 부피를 가지면서도 비물질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동일한 존재 안에서 차원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수많은 동선들을 용접하여 만들어진 선의 다발들이 이 합집산하면서 형상을 만들고, 형체의 일부분이 풀려서 바람처럼 휘날리는 것 같은 모습이다.

동선으로 이루어진 이 입체 드로잉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빨, 이빨, 발톱 등 특징적인 부분에 나타나는데, 동물적 공격성과 바람의 세기를 시각화 시키며, 그것들은 비물질적인 차원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게 한다.

## 2. 조형적 특성

### 1) 유동적인 선

선은 시각적 요소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기하학에서 무수한 점들의 연속으로 정의 한다. 이것들은 다른 말로 점이 이동하고 남긴 경로(經路)이며 하나의 이어진 동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칸딘스키는 선이 표현하고 있는 동적(動的)개념을 기하학상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이란 움직이는 궤적이며, 점의 소산이다. 선은 점이 내포하고 있는 완전한 정지를 파괴하면서 운동에서 출생되는 것. 즉, 정적(靜的)인 것에서 동적(動的)인 것으로의 비약이라 할 것 이

다.”라고 설명하면서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운동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변화하는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요소”<sup>5)</sup>라고 하였다. 하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선은 요약된 것이며, 그 자체가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6)</sup>”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은 이미 가시(可視)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주적 질서 속에 내제된 생명성을 지닌 상징 기호임을 말하며, 화가는 체험의 한 방식으로 붓과 몸의 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선의 울동감과 자율성에 의해 생(生)의 역동성을 표현하게 된다.

창작 과정에서의 선은 ‘긋는다’는 일종의 동작을 그대로 시각화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행위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선이 본질적으로 동적 특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어윈 에드만(Irwin Edman)은 “선은 음악의 리듬과 마찬가지로 그자체로 일종의 음악이다. ‘라는 말과 같이, 선은 제 조형요소 중에서 가장 음율적(音律的)이며 동시에 표현에 있어서의 행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이 내포하고 있는 음율적 리듬은 존재하는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생명율(生命律)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자연의 리듬, 생로병사(生老病死)와 같은 사람의 삶의 현상들을 의미하는 인생의 리듬 모두 이러한 선속에 함축(含蓄)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선적 표현에서 리듬의 내재(內在)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우어(DaVid A. Laue)는 “선은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고7)</sup> 말하였다. 또 선은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물의 외각이나 경계선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다.

---

5) Kandinsky 28p.

6) 하버트 리드 저. 김성희,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99p

7)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기」, (서울 ; 미진사), 1991. 51p

운동으로 이루어진 선은 우리의 눈에 따라 신경질적인, 격노한,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조용한, 흥분한, 우아한 춤추는 듯한 선 등 어떤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sup>8)</sup>

선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나 방향의 힘을 표출하고, 선의 장단, 각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선 그자체가 작가의 감정 상태 및 심상을 표현 하고 있다.

## 2) 시간성과 속도감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바람은 형상이 없다. 나뭇잎과 창문이 흔들리는 것, 살갓에 선뜻하게 닿는 감촉으로 다시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것. 그것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뿐이다. 시간도 그러하다. 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음식이 상하고, 사랑이 변하고, 사람이 늙는 것. 그것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흐르는 것을 느낀다. 칸트 훗설 하이데커 아인슈타인 베르그송... 굳이 시간에 대해 설파한 그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속도에서 파생하는 것'이라고 했고, 베르그송은 '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성'으로 보았다.

시간이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는 느낄 수 없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를 묘사할 때 시간이 멈추어버린 것 같다는 표현을 쓴다. 시간이란 이렇

---

8) David A.Lauer & Stephen Pentak. 이대일 옮김, 「조형 원리」, 1979. 144-21p

듯 동력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다.

미래파 선언 "속도와 운동의 세기가 될 것" 이탈리아 미래파 작가들의 사유는 이 시간의 흐름과 운동의 연속성에서 시작된다. 1909년 시인 마리네티는 '미래파 선언'에서 20세기는 속도와 운동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카메라로 걸어가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찍어서 되돌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감이 생기고 그 운동의 동력이 한눈에 잡힌다.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가 공간 속에서 단절된 동작을 드러내고 있다면 움베르토 보치오니를 중심으로 한 미래파는 사물의 형태나 운동을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보치오니는 "입체주의 화가들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은 사물의 정적인 면만을 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화나 조각에서 시간성에 대한 물체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미래파를 입체파보다 한 수 위라고 자부했다.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인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들'(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 1913, 청동, 111.2×88.5×40cm)은 얼핏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처럼 생겼다. 하지만 이 작품은 로봇이 아니라 걷고 있는 인체 조각이다. 보치오니는 1912년에 '미래주의 조각 : 기술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각을 시작했는데 1913년에 들어서면서는 걷고 있는 인체에 지나칠 정도로 치밀하고 더욱 과감한 운동의 표현을 시도했다.

'미래주의 조각 : 기술선언'에서 "기계의 엄격한 금속성을 나타내는 직선이 압도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휘날리는 옷자락이 마치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직선'이 아니라 경쾌하고 유동적인 '곡선'과 힘찬 표현이 차라리 조화롭게 표현되었다. 이

런 표현은 마치 화염과 같은 다리의 모습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견고 있는 인체의 팔과 다리는 마치 바람에 펄럭이며 밀려나는 것처럼 돌출되기도 하고 꽤어 들어가기도 하면서 여러 단면으로 심하게 분할되어 있다. 이것은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감, 즉 시간 속의 운동성을 율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큰 부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그리거나 조각한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했다<sup>9)</sup>



(도판1)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들, 움베르트 보치오니, 1913년, 111.2×88.5×40cm 청동

현 시대의 조각가 김석구의 조각에서는 역동적인 생명감과 기운의 매력을 지닌다. 최근작에는 생동하는 기세가 더욱 강렬하여 그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여 형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움직이지 않는 입체의 덩어리에 ‘움직임’을 담아내려는 이 역설적인 형상화의 자리에 그의 조각이 지닌 표현의 묘미가 있다. 회화의 경우 운동태(運動態)의 표현은 선(線)이 그 중심 요소가 되어 운동감과 결합된 선의 가동적(可動的)인 상태로서 나타낸다. 하지만 입체의 경우 그러한 선이 지닌 운동감을 양을 지닌 면(面)과 결합시키기란 여간 수월하지 않다.

김석구의 조각 작품은 바로 이러한 ‘생동적 기세’를 ‘선형화된 면과 조형화

9) 부산일보, 2010년 8월 26일, 34면



(도판2, 3) 영웅, 김선구, 2009, bronze 거대한 손을 주제로 미래적이면서 인간의 진취적인 열정의 에너지가 동시에 발산되는 Morning(早), 김선구, 2009 bronze

된 선'으로 형상화했으며, 그런 결과 작품은 단순히 대상의 형상을 그대로 옮겨내는 사실(寫實)의 구속에서 벗어나, 작가의 자유스런 의념(意念, 상상력)을 통하여 바라보고 본질에 의해 해석된 재창조이며, '사의(寫意)의 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작품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을 근간으로 한 동아시아의 미학적 전통과 기문화(氣文化)의 유산을 새롭게 계승하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모든 재현을 속도감 있는 일필의 선으로 표현하는 서양화가 박영근은 무수한 궤적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통해 시공간 속의 존재에 관한 철학을 표현한다. 그는 붓 대신 표면에 속도감 있는 궤적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전



(도판 4) 싸우다, 박영근, 2009, 145.5x227cm, oil on canvas

동 공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일단 캔버스 위에 두꺼운 물감 층을 만들어내고, 그 위를 라인더나 샌더를 이용하여 갈아내면, 화면 속에 그려진 대상은 명료하지는 않지만 마치 서로 다른 굵기의 실타래가 얽혀있는 모습처럼 그 형태를 드러낸다.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과 궤적을 만들어 내는 작가의 의도적인 방향설정이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존재가 마치 고정되지 않은 채 공간에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상태로 표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화면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무한한 선들의 층위를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만들어 내는 선들이 각각의 시간의 차이에 따라 겹쳐지면서, 대상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판 5) 질주하다, 박영근, 2009, 145.5×227cm, oil on canvas

이처럼 선의 형태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따라 운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은 【작품 1】 Wind rhinoceros, 【작품 3】 Wind dolphin 등과 같이 몇몇의 작품에서 운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일부의 일종의 ‘긴 꼬리’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일부분은 곡선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잔상이 되어 움직이는 이동방향에 따라 늘어지고, 이 꼬리는 일종의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장치로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시선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함으로 작품 자체가 역동적인 속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그 꼬리

자체를 시간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공기(바람)의 흐름을 선들의 유동적인 곡선과 선 굵기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흐름을 감쪽같이 시각화하여, 시간과 속도를 공간적으로 경험케 한다.

### 3. 작품분석



【작품 1】 Wind rhinoceros

## 【작품 1】 Wind rhinoceros

연도 : 2008년

크기 : 400x100x5000(mm)

재료 : copper

제작방법

4.76mm 동선을 긴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코뿔소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동선은 뭉쳐지거나 풀어지며 선들은 중첩되게 용접한다.

형상 제작 후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아가리(산화)를 사용하여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작품설명

코뿔소는 형태적으로 공격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 코에 발달되어진 뿔의 형상은 집중되어진 하나의 바람의 시작 점 이다. 코뿔소가 무언가에 빠르게 돌격하는 순간, 바람은 빠르게 코뿔소와 함께 흐른다. 바람처럼 빠르게 돌진하는 코뿔소의 형상을 곡선들의 집합을 풀어가며 표현하였고, 휘날려지는 선들을 통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역동적 바람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 2】 Wind eagle

## 【작품 2】 Wind eagle

연도 : 2010년

크기 : 2400x530x1700(mm)

재료 : copper

4mm, 4.76mm 두 종류의 동선을 진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형태를 제작한다. 용접한 동선틈새에 진노물을 산소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에 그라인딩하여 줄로 된 면으로 독수리 머리를 제작한다.

동선을 3줄, 4줄 중첩되어지는 곡선패션으로 날개를 표현하고 형상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유아가리(산화)로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이 작품은 독수리의가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날개를 달고 바람을 가르며 나르고픈 인간의 본성을 독수리의 형태 변형으로 극대화 시키고, 곡선들을 엇갈려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크기를 조절 하며 조형성을 고려하였다. 작품이 설치되어지는 벽과 조명과의 공간을 두어 그림자의 중첩으로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 Wind dolphin

### 【작품 3】 Wind dolphin

연도 : 2010년

크기 : 1200x700x1300(mm)

재료 : copper

#### 제작방법

2mm, 3mm 두 종류의 동선을 진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형태를 제작한다. 용접한 동선틈새에 진노물을 산소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에 그라인딩하여 줄로 된 면으로 돌고래의 머리를 제작한다.

동선을 뭉치고 풀어가며 몸을 형상화하고,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유아가리(산화)로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돌고래가 물위로 뛰어 오르는 순간을 표현 하여 순간의 긴장감과 돌고래의 운동방향을 형상의 잔상으로 표현하여 돌고래의 속도감을 잡아 낼 수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물 속 으로 들어갈 듯 생동감에 집중하였다.

머리 부분에 뭉쳐진 동선들이 강하게 공기를 가르며 꼬리로 가면서 흐트러지고, 공기 중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움직임의 여운을 표현하였다.

작품은 순간의 강한 긴장감을 잡아내려 노력하였고, 어미와 새끼의 구조로 배치하였다.

선을 흘림으로 동물의 운동감과 바람의 상태,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작품 4】 wind elephant ll

#### 【작품 4】 wind elephant II

연도 : 2010년

크기 : 2250x4500x2250(mm)

재료 : copper,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4.76mm, 6mm 동선을 진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코끼리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동선은 뭉쳐지거나 풀어지며 선들은 중첩되게 용접한다.

형상 제작 후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아가리(산화)를 사용하여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코끼리의 상아와 발톱부분은 스테인리스 환봉을 사용하여 골조를 만들고 연이어 붙여서 형태를 만들고 아르곤 용접하여 면을 성형한다. 전체적으로 그라인딩하여 먼 처리 하여 마무리한다.

#### 작품설명

바람에 대한 경험 속에서 동물의 이미지를 찾아 상징성을 부여하여 구상하였다. 어느 날 검은 먹구름은 지구를 먹어 삼킬 듯 다가왔다. 먹구름과 함께 웅장하고 근엄한 바람은 스산한 분위기로 온힘이 빠져 나갈 듯이 불어왔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를 마주하듯이 불어오던 바람으로 제작 하였다. 작품은 웅장함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크기에 앞으로 다가올 듯 바람처럼 흐르는 큰 귀와 상아부분을 강조하여 제작하였다.

동선은 머리 부분을 강조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뭉쳐 있으며, 몸 부분에서 부피는 크지만 풀어져 있는 표현으로 압도적인 웅장함을 주려 노력하였다.



【작품 5】 Wind tige

## 【작품 5】 Wind tige

연도 : 2007년

크기 : 700x1800x1200(mm)

재료 : copper

### 제작방법

4.76mm의 동선을 뭉치고 풀어가며 형상을 만든다.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유아가리(산화)로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나무가 우거진 산속을 걸을 때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름을 동반할 때가 있다.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바람의 느낌으로 형상화 하였다.

작품은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긴 꼬리’를 사용 한다. 이 꼬리는 일종의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장치로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시선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함으로 작품 자체가 역동적인 속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한 꼬리를 통해 앞으로 포효해 나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6】 Wind bird

## 【작품 6】 Wind bird

연도 : 2008년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copper

### 제작방법

4.76mm의 동선을 뭉치고 풀어가며 형상을 만든다.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유아가리(산화)로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해질 무렵 푸르던 하늘은 붉게 물들어지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듯 편안한 바람이 나를 스친다. 너무나 평온한 바람이다. 한 마리 새가 되어 바람의 몸을 맡긴 채 흐르고 싶음을 Wind bird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 7】 wind hippo

## 【작품 7】 wind hippo

연도 : 2009년

크기 : 600x1800x1400(mm)

재료 : copper, stainless steel

제작방법

4.76mm 동선을 긴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코끼리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동선은 뭉쳐지거나 풀어지며 선들은 중첩되게 용접한다.

형상 제작 후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아가리(산화)를 사용하여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하마의 이빨부분은 스테인리스 환봉을 사용하여 골조를 만들고 연이어 붙여서 형태를 만들고 아르곤 용접하여 면을 성형한다. 전체적으로 그라인딩하여 면 처리 하여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바람은 끈임 없이 불어온다.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 하려는 듯 귓속에 파고들어 귀가 지저질 듯하다. 나에게 외치는 바람은 마치 하마를 연상케 한다. 큰소리로 외치는 하마 같은 바람을 형상화해 보았다.

입이 크게 벌어진 하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과 몸의 비례를 주어 입을 강조해주고 벌어진 입의 주름도 벌어진 방향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게 하여 표현 하였다.



【작품 8】 Wind rhinoceros II

## 【작품 8】 Wind rhinoceros II

연도 : 2010년

크기 : 1300x6000x1500(mm)

재료 : copper,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4.76mm, 6mm 동선을 긴노봉을 사용하여 산소 용접하여 연이어 붙여가며 코뿔소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동선은 뭉쳐지거나 풀어지며 선들은 중첩되게 용접한다.

형상 제작 후 질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아가리(산화)를 사용하여 채색하여 보존 시킨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색의 음양을 조절하며 양감을 살려주며 마무리 한다.

코뿔소의 뿔 부분은 스테인리스 환봉을 사용하여 골조를 만들고 연이어 붙여서 형태를 만들고 아르곤 용접하여 면을 성형한다. 전체적으로 그라인딩하여 면 처리 하여 마무리한다.

### 작품설명

코뿔소의 가지거리는 10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전속력이 60km 움직이는 코뿔소는 거의 앞을 보지 않고 달려 나가는 것 과 같다. 달리는 코뿔소 무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춰 서지 않는다. 다만 그 주위의 동물들은 피해갈 뿐이다. 돌격하는 코뿔소의 강력한 이미지를 태풍의 이미지로 연상하여 제작하였다. 뿔을 강조하여 돌진하는 힘을 실어 주었고, 작품을 이루고 있는 곡선들로 태풍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 노력하였다.

작품은 벽 속에서 공간으로 돌진하는 모습으로 설치하여, 드로잉이 입체가 되듯,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주되어지는 조각을 표현 하였다. 빛을 이용한 벽면의 그림자의 효과로 바람의 선들은 재차 중첩되어져 유기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었다.

### Ⅲ. 결 론

본 연구자에게 바람이란 생명력을 표현하기위한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바람이라는 대상 속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물의 특징과 즉흥적 감성을 투영함으로써, 바람의 다양한 느낌을 시각화하여 바람의 형상을 표현하려 연구 하였다. 이런 점에서 바람은 감성적 표현에서 다양하게 변용 시킬 수 있는 소재로 다가왔으며, 시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대상의 감성적 교류는 자신에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동물의 형상적 연구는 동물의 진화되어진 모습과 습성의 특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동물들은 바람의 형상적 이미지로 차용함으로써 바람의 기운(氣運)을 표현할 수 있었다. 바람 이라는 자연현상을 본 연구자의 감성과 경험을 통해 동물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을 향한 열린 감성과 의지로 자연을 들여다보고, 동물의 형상적 연구를 통해 자연 속 동물들과 감성적 교감을 시각화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작품상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유동적 선들의 뭉침과 풀림을 통해 동물들의 시간성과 속도감을 잡아내어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율동적인 선의 변화함에 있어서 패턴화 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며, 또한 바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형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방법과 기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며 작업 하고자 한다. 또한 바람의 감성적 연감을 동물표현이 아닌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바람형상을 연구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Fritjof Capra,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 김용정 역, 서울: 범양사, 1993

김인환, [기운생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논문, 1981

다께우찌 도우지 [미학, 예술학 사전], 안연길 등 역, 미진사, 2003

Arnold Hauser, [예술사의 철학], 황기우 역, 돌베개, 1983

Herbert Read, [현대미술의 원리], 김현수 역, 열화당, 1991

하요 뒤히팅, [바실리 칸딘스키], 김보라 역, 마로니에북스, 2007

하버트 리드,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김성희 역, 시공사, 1998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기], 미진사, 1991

## ABSTRACT

### Study on Expression of 'the Wind' through Animals

Kang, Sung Hoon  
Dept. of Plastic Art  
Graduated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odes of representation in art have formed and developed by the influence of the natural climate and custom both from a period aspect and from a regional aspect, and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the natural climate on art is really immense. It might be possible for one to think of not only historic heritages and artists' works but also natural phenomena such as the weather as the objects of beauty, and to discover that such natural phenomena are the most closely felt in our living. Quite often, this writer used to feel joy by finding my value of existence in nature while having a concern for the wind among such natural forms.

The impromptu inspiration felt from being exposed to the ever-changing wind according to the weather and temperatures gives diverse experience. In addition, the sensibility felt by the mood, sentiment, atmosphere, and memory of one, who is exposed to the wind, sometimes makes it possible to feel image experience. The wind blowing on an empty street on a rainy evening gives bleak, lonely

feelings while the blowing wind on a sultry summer sunlight afternoon sometimes causes stifling stuffiness. When exposed to sea air, this writer softly closes his eyes and tries to be overwhelmed by a longing for times past just like being lost in old memories. A wind stimulates our sensibility by being on the skin with diverse feelings. This writer intends to express the sensibility in which a wind flows by visualizing the wind shape after visualizing the feelings of a wind into the flow of a metallic line through the figures of animals.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n the integrated state of a wind and animal with the theme of 'Windymal", consisting of three chapters in all.

The introduction in Chapter I explains the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method on this writer's work.

In the body of Chapter II, this paper considered the life force of a wind and symbolic meaning of an animal, which are the basis of the work. As the research method on the representation in the form of Windmal[wind animal]-theme of the work, this study described the formative properties of time and pace through fluid lines, and did research and analysis of production techniques and production intention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III, this paper made general re-arrangement of this thesis and made clear the research will for this writer's work progression line.